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트와일라잇' 中 드뷔시 '달빛'

달빛 가득한 몽환적 순간의 이미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 '트와일라잇'은 스테파니 메이어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을 둘러싼 갈등과 서스펜스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108년을 살아온 뱀파이어 에드워드(로버트 패틴슨)와 청순가련한 인간 소녀 벨라(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충격적인 사랑을 그린 이 작품은 최근 다섯 번째 에피소드가 개봉된 상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히는 씬이 바로 에드워드와 벨라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 벨라를 집으로 초대한다. 에드워드의 방을 구경하는 벨라. 그가 수집한 음반들을 둘러보다 음악을 플레이시킨다. 잔잔한 호수의 파문처럼 흐르는 피아노의 물결. 둘은 선율에 맞추어 수줍은 듯 춤을 춘다.

이 장면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극도의 긴장과 설레임의 간극을 메우며 흐르던 그 음악. 바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인 '달빛'이다.

드뷔시는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프랑스 작곡가다. 인상주의 음악은 회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기존 음악계의 화성법과 규칙적인 리듬에서 탈피하여 분위기와 순간적인 인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다. 베토벤이 인간의 격렬한 감정과 불굴의 의지를 음표에 담았고, 말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회한을 교향악적 화음에 담았다면 드뷔시는 우리 삶을 스쳐가는 수많은 영상과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순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달빛'은 드뷔시가 인상주의 기법을 확립한 시기의 작품은 아니지만, 이미 드뷔시 특유의 악상과 작법이 고스란히 투영된 작품이면서도 매우 서정적이다. 덕분에 첼로, 바이올린, 플룻 등 많은 편곡버전이 존재하며, 단독으로 독립 연주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레오폴드 스토콥스키의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은 또 한 편의 아름다운 사운드 트랙을 듣는 느낌이다.

단 한명의 드뷔시 스페셜리스트를 꼽으라면 단연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다. 극단적인 완벽주의 피아니스트였던 미켈란젤리의 작품해석은 연주하는 음악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서도 도이치 그라마폰에 남긴 일련의 드뷔시 피아노곡 녹음들은 최고의 연주로 꼽는다. 그의 드뷔시 연주는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냉철함과 지독한 탐미주의가 공존한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가 연주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은 현재 음반으로 남아있지 않다.

영화에 직접 사용된 음원은 토마스 바사리의 녹음이다. 관록과 연륜이 가득한 피아노 연주로 미묘한 음의 변화를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포착한 연주다. 최근의 연주자들 가운데서는 장 이브 티보데의 데카 녹음이 인상적이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듯한 연주. 애매모호하고 몽환적인 밤의 분위기 속에서, 운명처럼 다가온 뱀파이어와의 사랑을 앞둔 규정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느낌. 베일에 쌓인 것처럼 은은하게 뿌려지는 달빛의 이미지를 섬세하고 세련된 터치로 담아내고 있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영화 '말하는 건축가' 정재은 감독과의 대화

'건축은 문화'… 현장 직접 가보면 더 큰 감동 느껴져

"내 집은 백만평이다"… 삶을 보는 관점·지혜 배워

정감독 "가장 머물고 싶은 공간은 무주 납골당"

지난 6일 광주극장에서 열린 '말하는 건축가' 관객과의 대화는 열기로 가득했다.

'말하는 건축가'는 기적의 도서관, 봉하마을 사저 등을 설계한 고(故) 정기용(2002년 광주비엔날레 공공예술프로젝트 프로그래머) 건축가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관객과의 대화에는 정재은 감독, 행사를 준비한 나무 심는 건축인(대표 신정철) 회원 건축가들, 건축가를 꿈꾸는 여고생 등 많은 이들이 참여, 밤 10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추워서 '담요'를 덮고 영화를 보는 70년 세월의 단관 극장, 광주극장의 존재가 인상적이라는 정감독은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도시 공간,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인천을, '태풍태양'에서 잠실이라는 공간을 주인공처럼 묘사했죠. 건축가들도 분명 '작품'을 만드는데 왜 좋은 건축 작업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걸까 궁금했고, 건축가들에게도 관심이 갔죠. 평론가로부터 선생님을 추천받고 무주에 답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을 통해 '그의 건축이 중요한 가치를 전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첫만남은 2009년 12월이었다. 다큐를 찍고 싶다는 말에 "와, 재밌겠는데"가 노건축가의 첫 반응. 2010년 2월부터 촬영에 들어갔고 그의 마지막까지를 영화에 담았다. 녹화된 테이프는 400시간 분량. 정감독은 "그의 삶은 극히 넓고 깊어 내가 말로라도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관객과 부지런히 만나고 있다고 했다.

"이 영화는 선생님이 만든 거라고생각해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한시간씩 이어졌죠. 처음에는 감동적이라 열심히 들었죠. 근데 영화에 '말'만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갈등과 고통도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시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큐 제목도 '말하는 건축가'라고 정했죠.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신 게 '건축은 문화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죠. 육성으로 '말'을 들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줄 모릅니다."

지난 6일 광주극장에서 열린 '말하는 건축가' 관객과의 대화에 참가한 건축가 박홍근, 정재은 감독, 신석균 광주대 건축학과 교수. 〈사진 왼쪽부터〉

영화에서 정기용의 '작품'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 데 대한 관객의 아쉬움에 대해서는 직접 가볼 것을 권했다.

"처음부터 건축물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아요. 건축물을 예쁘게 잘 찍어낸 장면도 많았죠. 근데 결국 현장에서 직접 봐야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 하루를 머물다 보니 그제서야 이 공간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느낌이 전달되더라구요. 영화 관람 후 건축기행을 가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평생 집이 없었던 건축가는 다세대 주택 월셋방서 생을 마쳤다.

"선생님은 "내 집은 백만평이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비록 내 집은 스무평이만 창에서 내다보았을 때 가까이, 멀리 눈에 잡히는 풍경 전체, 버스에서 내려 내 집까지 걸어가는 길, 모두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집을 보는 관점, 도시를 보는 관점, 무엇보다 삶을 보는 관점을 가르쳐주셨어요. 선생님은 공부하고 책 읽는 것 좋아하는 사람, 늘 사유하고, 지혜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속에서는 흔들리는 카메라가 한번 등장한다.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전. 건축가는 봄나들이 가고 싶다고 사무소 식구들을 불러모았고, 정감독도 동행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하늘도 공기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마지막 나들이를 정감독은 아이폰으로 촬영했다.

정감독는 건축가의 작품 중 가장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무주 납골당을 골랐다.

"좋은 공간에 가면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해요. 납골함이 죽 늘어서 있는 납골당에 앉아있는데 참 편안해졌어요. 선생님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공간이지만 거기를 찾는 많은 '산 사람'들을 위해 그곳을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셨어요. 정읍 기적의도서관 흙으로 만든 김제 지평선 중학교도 꼭 가보세요."

건축가는 세상 떠나기 이틀전,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단다. 너무 좋은 꿈을 꿨다. 밤새도록 나무를 심었다. 너무 많이 심어서 이제는 쉬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이에 '나무를 심자'라는 말을 적었다.

정감독은 이 영화를 한회 한회차 카드 긁어가며 어렵게 찍었다. 좋아서 만든 작품, 극장 한곳에라도 내걸려 좋아하는 사람들과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1만명이면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관객은 2만명을 넘어섰다. '말하는 건축가'는 광주극장에서 상영중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에 박윤모씨

25년만에 재창단된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연극인 박윤모(59)씨가 6일 선임됐다.

조선대 국문과 출신으로 조대극회에서 활동한 박 예술감독은 조선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광주연극협회장 및 이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광주연극협회 고문과 궁동예술극장장을 맡고 있다.

박 예술감독은 모노드라마 '아버지'를 국내외 무대에 200여차례 올리는 등 현역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예총 신임회장에 전종구씨

"공연·전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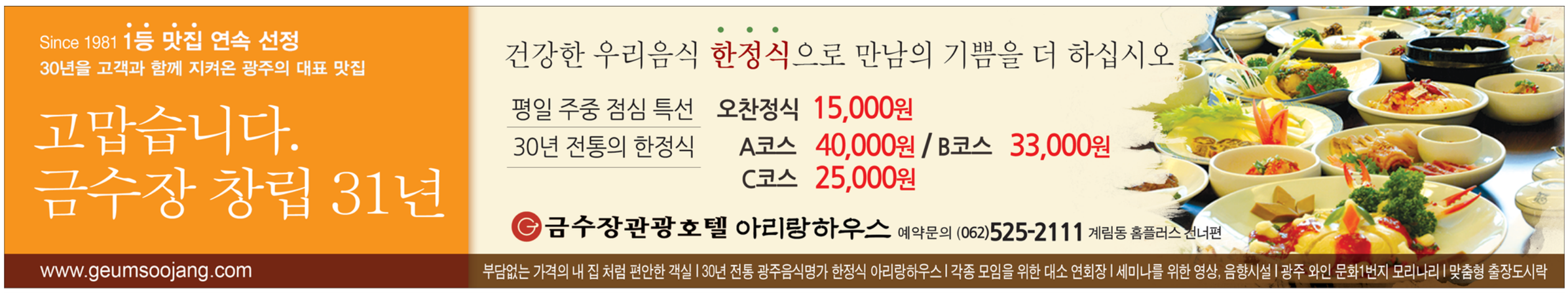
"특별히 제 능력이나 경험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회원들이 저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변화를 택했다고 생각해요. 16년 동안 예총이 변화하지 않은 데 대해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8일 열린 전남예총 10대 회장 선거에서 서예가 전종구(47)씨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는 하철경 전 회장이 한국예총 회장으로 취임, 16년만에 회장이 바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대의원 139명중 132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김왕현씨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에 실패,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씨가 70표를 획득, 59표를 얻은 김씨를 누르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성과도 많았지만 16년 동안 1인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대화의 창구가 없고, 갈등의 골도 깊은 상황이었어요.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각 지부장님, 장르별 회장님, 회원들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갈 겁니다. 또 예총 발전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전남예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전 회장은 "공연분야와 전시 분야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각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출신으로 호남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전씨는 전남도 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